DOI: https://doi.org/10.28977/jbtr.2014.4.34.302

<서평>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유은걸*

1. 들어가는 말

쉽고도 정확한 번역은 모든 역본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번역 작업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래에 독일에서 나온 『기본성경』(*BasisBibel*)[1]은 그 후기(Nachwort)에서 강조하듯이, 단연 전자매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본을 지향한다. 이 성경이 얼마나 탁월한 번역인지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기본성경』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2] 처음 기획한 의도에 상당 부분 부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기본성경』의 번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국역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3]

---

*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약학.

1) *BasisBibel: Neue Testament und die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BasisBible*을 우리말로 어떻게 부를까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었다. '기초성경', '기본성경', '근본성경', '밑바탕 성경' 등. 바시스비벨(*BasisBible*)은 단지 이해하기 쉬운 기초적인 역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본주의를 연상시키는 '근본성경'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어떤 일을 기획하기 위한 듯한 '밑바탕 성경'도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필자는 생소하게 들릴지라도 "기틀 성경"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기틀'은 일단 순 우리말이고,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가장 적절해 보인다. 다만 *BasisBibel*을 소개하는 본고에서는 무난하게 "기본성경"이라 통칭하겠다.

2) 『기본성경』이 구체적인 판매고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으나, 아마존을 위시한 각종 독일 사이트에서 이 역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이를 예증한다. 독일개신교연합(Evangelische Kirche Deutschland)의 홈페이지(https://www.ekd.de/bibel/bibelausgaben.html)에는 『기본성경』이 루터역, 공동번역 등과 함께 참고할 주요 역본으로 소개된다. 특별히 2011년 『기본성경』은 다음과 같은 상을 받았다. ① Art Directors Club ADC-Award , ② Art Directors Club ADC-Award, ③ Cannes Lions International Advertising Festival (Goldener Löwe), ④ red dot design award, ⑤ Art Directorc Club of Europe ADCE (Gold Star in der Kategorie Editorial). 이에 대해서 http://www.basisbibel.de/auszeichnungen/

3) 본고에서는 구약성서 부분은 번역 평가 부분에서 사실상 제외하였다.

2. 『기본성경』의 외관

성서 번역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외관은 대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기본성경』의 경우는 다르다. 본 성경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배려하고 멀티 미디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목적에서 기획된 번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각 행을 적으면 두 단어, 많으면 열 단어 안쪽으로 처리한 과감한 판형이다. 절마다 새로운 행에서 시작하는 구성은 우리말 성경에서도 적지 않게 시도된 것이지만, 이처럼 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판형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다. 다만,『기본성경』이 가독성(可讀性)의 증진을 꾀한 것으로서 이런 편제는 두꺼운 성경본의 제작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 성경은 신약과 시편만을 담고 있으나, 도합 1400쪽이 넘는 분량이 되고 말았다. 향후 한국에서 유사한 형태의 역본을 시도할 경우, 얇은 두께의 성서 - 그것도 신구약 합본 - 를 선호하는 한국의 다수 독자들이 이를 환영할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둘째로,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젊은 세대가 친숙한 전자매체(elektronische Medien)를 활용하고자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아래 2. '번역 원칙'도 참조).『기본성경』은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읽거나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4]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일부러 컴퓨터를 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5]. 향후 PC의 기능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런 방향 설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자매체에 기반을 둔 성경 역본이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일이 색인이나 사전을 뒤지지 않더라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기존의 성서를 단순히 읽음으로써 얻을 수 없는 바, 사진이나 동영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은 '읽는' 성경에서 '보는' 성경으로 전환을 꾀한 것이라 하겠다. 또 듣기 기능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전자매체로 성경이 출간되는 경향이 반드시 성서가 널리 읽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

4) www.basisbibel.de 이 목적은 모든 쪽 번호 옆에 basisbibel.de/nt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한 데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전자매체의 하이퍼링크를 활용하는 것과 관계없는 인쇄본에서, 매 쪽마다 이런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5) 2014년 1월 현재, iOS의 경우 $13.99,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17,63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없음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6]

셋째로, 『기본성경』은 곳곳에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른바 '해설성경'으로 이름 붙인 성경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신약의 각권은 2쪽 분량의 개관으로 시작된다. 그 내용은 신학적인 설명에 할애된다기보다는,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다(참조 사도행전 해설, 531-532쪽). 『기본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난외주'에 해당하는 개념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서를 읽다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만날 때 쉽게 그 의미와 용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백에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고대의 개념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층을 배려한 시도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탄', '대제사장' 등의 난외주 설명은 해당 장절의 위치에 **반복해서** 소개된다. 철저하게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거듭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느낌도 든다. 한편, 새롭지만 다소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는 '주제어 목록'[7]을 들 수 있다. 가령, '기도'(Gebet)는 마태복음 5장 가운데(28-29쪽 사이), '천사'(Engel)는 사도행전 12장 중(588-589쪽 사이)에 배치된다. 그런데 이 목록들은 해당 주제가 신약성서 다른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열거하는 수준의 정보만 제시할 뿐 별다른 기능이 없는데도, 본문 중 두 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흐름을 끊을 소지가 크다고 본다. 한편, 공관복음서의 병행본문을 밝혀주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구약인용을 표기하지 않은 점, 최소한의 필수적인 본문비평주마저 생략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기왕에 단순 번역본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면, 다양한 상호 관주(cross reference)가 긴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넷째로, 시각적으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원색 바탕에 흰 십자가로 책을 두른 듯한 모습은 젊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성서에 사용되는 검정 계열 색상을 과감히 탈피하고,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등을 사용한 것이다. 성서가 특정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시도이다. 청소년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우리도 적극 따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갖고 싶고 애착을 둘 수 있는 물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그들의 습성을 상기하면, 이

6) 실제로 예배시에 더 이상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성경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다.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읽는다'는 목적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본다'는 기능이 더 강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7) 『기본성경』(*BasisBibel*) 6쪽에는 이 주제어 목록이 위치한 곳을 정리해 준다(Übersicht der Themenseiten).

들의 기호에 맞는 외관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다만 유사한 역본을 한국에서 기획할 경우, 해외보다 가죽 장정을 선호하는 독자들이 이를 구입하기를 얼마나 원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스스로 읽고 싶어서 성서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의미 있는 선물로 입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고급형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기본성경』의 번역 원칙

성서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쉬운 번역', 또는 '풀어 옮긴 번역'(paraphrased translation)은 흔히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적인 성격을 획득하지 못하였다.[8] 그러나 좋은 번역인지, 나쁜 번역인지의 여부는 '직역'이나 '의역'에 가까우냐로 판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번역 원칙 및 구상에 충실했느냐에 따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9] 물론 그 원칙 자체도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성서 역본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또는 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적절하게 계승하는지도 이 원칙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성경』이 표방하는 번역의 원칙을 점검해 보자.[10]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통을 위한 번역'(die kommunikative Übersetzung)이다.[11] 이 원칙은 무엇보다 교회 밖의 사회에서 점차 성경을 이해하는 선 이해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성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독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문의 본래 형태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번역문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시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자의 이해가 단지 번역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의 판단에, 『기본성경』의 제작자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현대

8)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표준새번역』 이 '자유로운 번역'이라는 비판 아래 수용하기를 거부했던 움직임이 이를 예증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부 추진위원회 간, 『소위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의 실체』(서울: 총회신학부, 1993); 김중은, "표준새번역 성경 구약번역에 관한 비평적 고찰", 『구약의 말씀과 현실』(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416-441.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 131-151을 보라.

9) 이 번역 원칙은 『기본성경』의 후기 7*-11*쪽에 제시된 것을 요약한 것이다.

10) 『기본성경』이 후기에서 제시한 번역의 원칙은 크게 '소통을 돕는 번역', '전자매체 시대에 맞는 번역', '루터의 원칙을 계승한 번역'으로 요약된다. 이 중 전자매체에 관련된 것은 앞 절 '외관'에서 상당 부분 다뤘고, 루터의 원리는 기술적인 이유로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취급할 것이다.

11) BasisBibel, 7*.

독자들의 이해는 단지 번역을 쉽게 해줌으로써 충족되기 어렵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본문에 담겨 있는 여러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지 읽기 쉬운 역문을 제시한다고 해서 2000년 전의 고대 문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찰은 앞서 논의한 난외주 등『기본성경』의 외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번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번역본은 단지 풀어 옮긴 번역(paraphrase)이 아니라,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12]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설 성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기존의 해설 성경이 독자들의 묵상과 적용에 함부로 개입하여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면, 이른바 해설이 제시하는 정보는 말씀의 역동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13]

『기본성경』을 단순히 의역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루터의 번역 원칙을 따른다고 천명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14] 이에 따르면 번역자들은 ① 독자들에게 충실해야 하고, ② 본문에 충실해야 하며 ③ 복음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 곧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를 사용하되 시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또 번역자가 접근 가능한 최선의 원문을 대본으로 써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셨다는 복음의 내용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기본성경』은, 원문의 구조와 표현을 살리기보다는 원문의 뜻을 번역어의 용례에서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대응번역'(dynamic equivalence)을 추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자역보다 오히려 더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옮긴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해 구절인 로마서 1:17이다.『개역개정』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처리했는데, 원문의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계시된다"는 표상은 매우 난해하다.『기본성경』은 "Durch die Gute Nachricht wird Gottes Gerechtigkeit

12) 대표적인 사례가 롬 5:8이다. "Aber Gott beweist seine Liebe zu uns dadurch, dass Christus für uns gestorben ist-und zwar damals, als wir noch *mit Schuld beladen waren*." 먼저 'mit Schuld beladen sein'이라는 표현으로 'Sünder sein'이 행위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난외주를 통해서 Schuld의 의미는 '하나님 없는 삶'인 것을 풀이해 주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성경원문연구」9 (2001), 111. 물론『기본성경』은 NET와 같이 전문적인 설명으로 독자들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14) BasisBibel, 11*.

offenbar. Das geschieht aufgrund des Glaubens und führt zum Glauben"('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믿음으로 인도합니다')으로 번역했다.

문자역이 사실상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데 반해, 이 번역은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보이고, 나아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같은 독어권의 EIN이 "Denn im Evangelium wird die Gerechtigkeit Gottes offenbart aus Glauben zum Glauben"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다')으로 옮겼고 사실상 문자역에 머물러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훨씬 진일보한 번역이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요한복음 18:6을 들 수 있다. 예수를 체포하러 온 유대인들이 그가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진다. 번역 자체로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처신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굿뉴스바이블』은 아무런 해설도 붙이지 않고 있고, 『독일성서공회 해설성경』은 8:24의 해설을 참조하도록 지시하지만, 그곳까지 찾아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읽는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왜 유대인들이 땅에 엎드렸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기본성경』은 난외주를 통해서, '나는 …이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이 있음을 간결하게 풀어준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와 함께 '출 3:14; 사 41:4; 43:10' 같은 구약 관련 구절까지 소개하고 있다(www.basisbibel.de). 물론 『기본성경』이 예수의 진술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밝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나 쓰러졌다고 설명하는 식의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는 않는다. 바로 독자들이 스스로 본문에 대하여 질문하고 더욱 연구하도록 유도하는 의중으로 읽힌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판 해설 성경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대부분 기존의 개역판 본문에 해외의 보수적인 해설서를 병렬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5] 심지어 신뢰할 만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독일성서공회 해설성경』과 『굿뉴스바이블』역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성경도 해설을 위하여 애초에 새롭게 번역한 본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향후에 국역 해설 성경을 준비한다면, **번역과 기초 해설을 동시에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NET같이 전문적인 해설 성경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버거운 신학적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성경』과 같은 편제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

15) 이에 대해서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9-22;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성서", 116.

을 위하여 온라인 성경을 마련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필자는 성서 번역의 특징을 '찾아가는 번역'과 '초대하는 번역'으로 구별하고 싶다.[16] 이 구분은 축자역이나 자유역 등 원문과 번역문의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로 독자와 번역자의 관계에 집중한다. 즉 번역자가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독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독자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번역자가 제시한 세계로 **들어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성서는 알기 쉽게 번역했다고 해서 바로 독자들의 이해가 증진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이 본문에 대하여 질문하고 스스로 연구하도록 유도해야 자기 나름의 묵상에 도달할 수 있다.[17] 전자가 '찾아가는 번역'으로 규정된다면, 후자는 '초청하는 번역'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성경』은 어려운 단어를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찾아가는 번역'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초대하는 번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국역본을 준비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기본성경』의 실제 번역과 그 평가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번역 원칙에 따라 『기본성경』의 실제 번역을 짚어보자.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문(短文) 중심의 번역을 추구한다.[18]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16은 원문에서 한 문장이지만, 번역에서는 다

16) 이 관찰은 주로 번역학의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적인 번역이 원문의 기능을 밝히는 데 매몰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번역문과 독자들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번역의 기능은 번역자가 염두에 둔 독자들의 지식, 기대,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독자들의 상황은 원문의 기능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현저히 바꾸기도 한다. 결국 번역의 해독 과정에는 독자의 경험과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Ch. Nord, *Textanalyse und Übersetzen: Theoretische Grundlagen, Methode und Didaktik des funktionalen Übersetzens* (Tübingen: Groos, 2007); P. Kußmaul,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 Benjamins, 1995).

17) 가령 진지하게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코란을 원문으로 읽기 위하여 아랍어를 배우도록 요구 받는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려우나, 그들의 강한 신앙의식은 이렇게 값을 치르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기독교는 그 경전의 수용 과정이 역사적으로 번역에 의지하는 바 크다. 칠십인역의 존재가 이를 잘 예증한다.

18) 각 절은 16단어를 넘기지 않도록 했고, 하나의 종속절만을 갖도록 했다. BasisBibel, 9*. 짧은 문장을 추구하다보니 문체적인 아름다움이 반감되는 듯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유명한 시 1:1은 다음과 같이 옮겨졌다. "Glücklich ist der Mensch, der in dieser Weise lebt: Er folgt nicht dem Vorbild der Frevler und betritt nicht den Weg der Sünder"('복되도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 그는 행악자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죄인을 길을 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in dieser Weise)라는 어구는 원문에도 없는 것이고 현대의 문체에도 과히

섯 문장으로 처리된다. 원문은 길 뿐만 아니라 접속사나 분사로 인한 다양한 논리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를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19] 『개역개정』은 ἵνα나 ὅτι가 잘 표현하지 못한데 반해, 『표준』은 이를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떤 국역에서든 주절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문장의 핵심인 것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바로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의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짧은 문장으로 끊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더욱이 단문으로 번역할 경우 장중한 문체를 희생시켜야 하는 측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은 짧은 문장으로 번역한 탓에 인과관계가 잘 살려지지 않은 경우이다. "Es geschah mit machtvollen Taten, mithilfe des Heiligen Geistes und mit großer Überzeugungskraft. *Ihr wisst doch*, wie wir uns mit Rücksicht auf euch verhalten haben – damals, als wir bei euch waren."('그것은 강한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힘입고, 큰 확신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아십니다'). 복음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는 이유는 καθώς절에 표현된 것이 때문에 두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역』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는 표현이 차라리 적절할 수도 있다. 1:6은 독일어에 분사구문이 발달하지 않아서 논리관계가 약화된 경우이다.[20] "Und diese Freude kommt vom Heiligen Geist."('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분사 δεξάμενοι는 단지 '그리고'(und)로 연결되었을 뿐이다.

원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번역어로 잘 표현한다는 원칙이 항상 잘 지켜진 것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ἔργα νόμου)는 모두 '율법을 지키다'(das Gesetz befolgen)라는 말로 풀어서 옮겼다(롬 3:20, 28; 갈 2:16; 3:2). 이런 시도 덕분에 원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바울이 강조하며 비판하려 한 한 개념의 실체는 다소 모호해졌다. 정작 난외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이는 상응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아서 신학적인 오류를 남긴 사례로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2:18을 『기본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enn ich

---

좋은 어감을 주지 못하지만, 긴 문장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 참조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

20) 유은걸, "국역성서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대한 소고: 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102 이하.

nämlich *das Gesetz* wieder einführe, das ich vorher abgeschafft habe, dann heißt das: Ich selbst stelle mich als jemand hin, der es übertritt"('만일 내가 이미 폐지한 율법을 다시 도입한다면, 내 자신이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ἃ κατέλυσα에서 ἅ는 중성 복수 관계대명사이므로 νόμος를 받을 수 없다. 이와 상응할 수 있는 중성복수 명사는 ἔργα νόμου밖에 없고, 바울은 믿음에 대비된 '율법의 행위들'을 부정한 것이지, 결코 율법 자체를 폐기한 바는 없다. 만일 그러했다면 갈라디아서 3:21; 로마서 3:31과 심각한 신학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번역 원칙이 잘 지켜진 사례 중 하나는 히브리서 12:2이다. 『개역개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사실상 오역한 것을, 『새번역』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적절히 바로 잡았다.[21] 『기본성경』은 "Dabei wollen wir den Blick auf Jesus richten. Er hat uns zum Glauben geführt und wird ihn auch vollenden"으로 처리하였다. 우리말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정도에 해당한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밝혔지만, '창시자'(ἀρχηγός)나 '완성자'(τελειωτής)와 같은 원문의 문법적 형태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원문의 구조를 따르느라 다시금 설명해 주어야 하는 비효율성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치사의 번역은 상당히 탁월하게 처리된 걸로 보인다.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기계적으로 번역되는 ἐν Χριστῷ를 "zu Christus gehören"(그리스도께 속하다)으로 옮겼다. 예컨대, "Wenn jemand *zu Christus gehört*, gehört er schon zur neuen Schöpfung"('누군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는 이미 새 피조물에 속한 것입니다' 고후 5:17); "aufgrund der Erlösung, die sie *durch ihre Zugehörigkeit zu Christus Jesus* erfahren haben"('그리스도 예수께 속함으로써 체험하게 된 대속을 근거로', 롬 3:24) 등이 그러하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물질로 된 존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이 문구는 단연 영적인 합일을 의미하는 메타포이므로, 『기본성경』의 역어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데살로니가전서 1:5의 ἐν πνεύματι도 mithilfe des Heiligen Geistes('성령을 힘 입어')로 잘 옮겼다.

아울러 국역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전치사 διά+ 속격이다.[22] 『기본성경』도 이 전치사를 durch로 번역하는 것을 피하지는 않는다(참조 마 12:17; 19:24; 행 3:18). 그러나 독일어는 본래 이 전치사를 우리말의 '통하여'보다 더

21) Ibid., 104, 각주 25.

22) 이에 대해서, 김창락, "「표준새번역 개정판」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0 (2002), 9.

많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국역본 중 『새번역』과 『공동』은 '통하여'를 가급적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참조 눅 18:25; 요 10:1), 경우에 따라 과도한 번역을 택한 경우도 있다. 『새번역』은 로마서 2:16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로 옮겼다. 반면 『기본성경』은 "die ich *mithilfe von* Christus Jesus verkünde"('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선포하는')라는 역문을 택하였다. 사도행전 24:2는 διὰ σοῦ와 διὰ τῆς σῆς προνοίας를 각각 "Dein Verdienst ist es, dass …"('당신이 행한 일은 …입니다')와 "und deiner Umsicht verdanken wir …"('…한 것은 당신의 배려 덕분입니다')로 옮겨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혔다.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도 발견된다. 팔복의 말씀 중 마태복음 5:3은 "Glückselig sind die, die wissen, dass sie vor Gott arm sind"('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줄 아는 자들은 복되도다')로 번역되고, 난외주로 'vor Gott arm'을 "Menschen, die alles von Gott erwarten"('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에 대한 학계의 주석적 토론 상황과는 무관한, 상당히 주관적인—사실상 자의적인—해석이라고 하겠다. 이어지는 4절의 '애통하는 사람들'은 "die, die an der Not der Welt leiden"('세상의 곤궁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처리했다. 애통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좀 더 분명히 밝힌 번역이라고 하겠지만, 애통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데 반해 『기본성경』의 선택은 후자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성경』이 뛰어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이 지적은 신약성서의 각권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번역에 임했느냐라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한 책 안에서도 일관된 표현을 쓰지 않았다. 가령 갈라디아서 2:16에서 δικαιοῦσθαι가 3번 사용되는데, 같은 절 안에서 'als gerecht gelten'(의롭다고 간주되다)와 'von seiner Schuld frei sprechen'(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다)로 달리 옮겼다. 반복을 피하는 것이 문체상 좋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용어는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용어 선택도 정교한 조율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ἁμαρτία를 복음서는 모두 'Schuld'(죄과)로 옮기는 데 반해서 서신서들은 주로 Sünde(죄)로 번역한다. 단지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역어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로마서는 모두 Sünde로 처리했지만, 같은 바울의 글인 갈라디아서에서는 일관되게 Schuld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주요 개념어에 상이한 역어를 채택한 경우를 적잖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번역어 목록 등을 통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일

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기할 만한 점은, 초역자와 개괄적 설명을 덧붙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23] 이것은 공역(共譯)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서,[24] '책임 번역'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서 번역자가 피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 외에도, 역어의 통일성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이 가중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본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기본성경』은 그 특색이 분명한 우수한 번역이다. 그 번역이 추구하는 방향은 단지 청소년을 위한 쉬운 역본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통일성이라는 부분이 약해 보이지만, 역으로 본문의 본래 의도에 따라 과감히 직역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신뢰감을 주는 부분도 있었다.[25]

5. 나오는 말

『기본성경』에 대해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새로운 번역이 '읽기 쉬운 성경'을 추구했지만, 이것은 자유로운 번역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독자들이 더욱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컸다. 기존의 해설성경보다 더욱 본문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그 이상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온라인 성경으로 보충하려한 시도도 참신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기본성경』은 '찾아가는 번역'과 '초대하는 번역'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별히 전자매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번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국역본을 기획할 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Keywords)
BasisBibel, Electronic Media, Visiting Translation, Inviting Translation.
기본성경, 전자매체, 찾아가는 번역, 초대하는 번역.

(투고 일자: 2014년 2월 3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23일)

23) BasisBibel, Nachwort, 13*.
24)『기본성경』과 같이 한 책의 초역자를 명시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독일의 공동번역(Einheitsübersetzung) 역시 전체 참여자와 감수자를 밝히고 있다.
25) 한 사례로, 요한복음 특유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요 3:3 등)는 "*Amen, amen*, das sage ich dir"로 번역하여 LUT(루터역)이나 ELB의 "wahrlich"보다 직역을 취한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김중은, “표준새번역 성경 구약번역에 관한 비평적 고찰”,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416-41.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

김창락, “「표준새번역 개정판」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성경원문연구」 10 (2002), 7-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부 추진위원회 간, 『소위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의 실체』, 서울: 총회신학부, 1993.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왕대일, “우리가 만드는 해설 성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말 해설 성서의 작성과 편집을 위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9 (2001), 106-124.

유은걸, “국역성서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대한 소고: 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10.

Kußmaul, P.,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 Benjamins, 1995.

Nord, Ch., *Textanalyse und Übersetzen: Theoretische Grundlagen, Methode und Didaktik des funktionalen Übersetzens*, Tübingen: Groos, 2007.

<Abstract>

Book Review —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Prof. Eun-Geol Lyu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BasisBibel*, a newly published German translation, and to discuss how we should prepare for a Korean version to come in the future. In contrast to common belief that the *BasisBibel* offers a legible translation derived from free rendering, this Bible provide readers with an interpretation which roots in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s. This Bible is, according to my observation, to be qualified as a combination of 'visiting translation' and 'inviting translation', by leaving ample possibilities for readers to involve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t could be the reason why its translators give indispensible definition or information on concepts with notes in margins, leading the readers to further meditati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in the Bible is that it prepares for the electronic media era. Young generation, familiar with smart phones and internet, now have access to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on the web.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note that a Korean version, if it follows the model of the *BasisBibel*, calls for consistency in dealing with translated words.